

## 『林巨正』에 나타난 정치성 연구

### Political Characteristics in the Historical Novels, 『Lim Kkeokjeong』

음 영 철

삼육대학교

Eum yeong-cheol

Sahmyook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는 홍명희의 『林巨正』에 나타난 정치성을 연구한 것이다. 주된 논의는 랑시에르의 이론을 원용하여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핵심 키워드는 탈봉건적 민중언어, 평등사상, 서사의 확장, 반시대적 자유인을 들 수 있다. 랑시에르가 지적했듯이 예술을 통한 감성의 분할은 사유의 특권을 가진 집합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기존 체제에 ‘불화’와 ‘불일치’를 가져온 실존 인물을 다룬 『林巨正』 이에 적합한 텍스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I. 서론

루카치에 따르면, 현실의 문학적 모방이란 차원에서 역사소설을 보았을 때 역사소설은 대략 19세기 초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역사소설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제강점기, 군부독재기, 신자유주의 시대에 다량으로 창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정호웅에 따르면 세계의 전체상을 구체적 탐구로 보여줄 수 있는 산문정신이 위축된 시대와 맞물려 있다.[1] 어찌 보면 사회적 격변으로 인해 삶의 총체성이 무너진 시대야말로 역사소설 발생의 사회적·역사적 조건이며, 우리는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소설의 장면에 등장한 소설을 통해 삶의 총체성을 탐구하기도 하는 것이다.’[2]

홍명희의 『林巨正』은 1928년 11월 21일 <조선일보>에 연재 첫 회를 시작하여 1940년 10월 잡지 <조광>에 연재를 마감한 역사소설이다. 『林巨正』은 연재 초기에는 좌우익 모든 지식인에게서 찬사를 받았지만, 홍명희가 북쪽으로 가면서 남쪽에서는 금기된 작품이 되었다. 그러다 1987년 이후 『林巨正』이 다시 읽히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林巨正』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도 이 시기 이후부터이다.[3]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벽초 홍명희의 역사소설 『林巨正』이 갖는 정치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으로는 자크 랑시에르의 정치 이론을 원용하여 하층 계급의 저항의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물론 서구의 역사소설 이론으로 한국의 역사소설을 논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林巨正』을 새로운 시각에서 논하여 그 문학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 작품에는 근대 서구 소설의 리얼리즘적 요소와 우리의 전통적인 이야기 형식을 갖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소설의 가능성과 한계는 기존 역사소설과 ‘불화’ 혹은 ‘불일치’한 것으로 랑시

에르가 말한 ‘감각의 분할’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이 근본적으로 감성의 분할을 재구성한다면, 『林巨正』과 같은 역사소설은 정치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II. 본론

랑시에르의 독특한 미학은 ‘감각이나 지각을 분배하는 하나의 정치적 체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감각적 경험들인 보고, 말하고, 사유하는 것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는가의 문제는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사실이 문학적 허구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보다는 감성의 혁명 없이는 어떠한 정치적 혁명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랑시에르의 미학적 예술 체제에 입각하여 『林巨正』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삶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감각 양식을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성, 새로운 인간상,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룰 중점 연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급의식의 반역성과 연관된 탈봉건적 민중언어가 갖는 감성의 분할을 밝히고자 한다.** 홍명희는 많은 시간 동안 민중지향적 삶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역사적 자료를 조사하여 작품을 집필하였다. 예컨대 『林巨正』에는 10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입말’이 등장인물들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본 연구는 한자어와 외래어가 봉쇄한 미학적 비상구를 이들 작품에 구현된 민중언어를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역사소설이 갖는 기술적 요소를 통해 기존 언어와 ‘불화’를 일으키며, 이로 인한 모더니티의 새로운 장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수평적 인간관계를 기조로 한 억압과 종속 사이의 대립 구도를 통해 나타난 평등사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임꺽정과 칠두령은 무식하고 솔직한 위험인물들이다. 그들은 백정의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반역자 출신이다. 한 마디로 이들은 영웅이 왕후장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 속에도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랑시에르가 말한 ‘평등성’과 ‘익명성’의 확장이 이들 텍스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임꺽정을 중심으로 밝힐 것이다.

**셋째, 다양한 설화를 바탕으로 한 서사의 확장을 다루고자 한다.** 벽초 홍명희는 당시의 소설 문법 특히 ‘영웅 서사’의 정형화된 틀을 거부한다. 예컨대 임꺽정과 칠두령은 고귀한 혈통의 인물들이 아닌 백정, 상인, 도둑일 뿐이다. 또한 비정상적인 잉태 혹은 태생도 없으며, 영웅에게서 나타나는 비범한 지혜와 능력 또한 없다. 임꺽정만 해도 당대의 지식인인 갖바치의 수제자이지만 그에게서 배운 것은 출세의 수단으로서의 학문도 아니고, 혁명가의 정신도 아니었다. 홍명희는 설화를 이야기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민중의 운명과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할 뿐이다. 본 연구는 『林巨正』에 나타난 다양한 서사양식을 통해 기존의 서사문법을 해체하면서 나타난 평등사상을 정치성의 측면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소설에 등장한 반시대적 자유인의 표상을 모색하고자 한다.** 임꺽정은 조선시대의 실존 인물로 군도 형태로 나타난 바 있다. 홍명희는 역사소설의 형식을 통해 현실에 저항하는 임꺽정과 칠두령을 통해 조선시대의 지배 계급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의 정치적 모순을 극복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와 식민지 시대에 따른 억압받는 계층의 삶을 통해 현실에 저항하고 극복하는 단초를 보여주하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 식민지 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층민의 저항의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홍명희는 1930년대의 좌우합작의 좋은 사례를 문학의 정치성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林巨正』에는 글의 후반으로 갈수록 의적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심지어 아내를 여러 명이나 둘 정도로 임꺽정은 바람둥이다. 이러한 면모는 영웅의 면모라기보다는 반시대적 자유인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林巨正』의 정치성 연구가 랑시에르가 말한 미학의 정치 수준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林巨正』에는 여전히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예술과 정치의 문제를 사유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본다.

### III. 결론

역사의 고비마다 한국의 작가들은 역사소설을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조명하고 당대의 난제들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는 루카치가 말한 ‘총체성의 회복’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영웅적 인물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사실의 낭만화와 사사화’가 초래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재와 길항 관계에 있는 역사적 사건을 우회적으로 다루면서 ‘현재의 구체적 전사(前史)’가 되지 못하고 역사의 사사화(私事化)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소설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 『林巨正』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근현대 역사소설을 대표하는 『林巨正』을 통해 그간의 루카치 중심의 역사소설론을 지양하고 랑시에르에 기대어 역사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자 하였다. 이는 미학과 정치를 결합한 문학의 정치가 어떻게 역사소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역사소설 중에서 『林巨正』을 택하여 소설을 정치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과거와 현재의 담론을 형성하는 역사적 사건이 사회학적 영역과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어떻게 미학과 연결되어 독자들의 의식구조를 형성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과거의 역사소설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많은 지식을 창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팩션(faction)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본다.

### ■ 참고 문헌 ■

- [1] 정호웅, 한국의 역사소설, 역락, p.12, 2006.
- [2] 게오르크 루카치, 이영욱 역, 역사소설론, 거름, pp.17-30, 1987.
- [3] 임형택·강영주,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자료』, 사계절, p.350, 1996.